

[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]

저는 학생회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. 당시 학생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시도하고자 여러 SNS 매체를 활용해봤는데,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학생회 채널을 개설하여 각종 행사의 홍보 및 피드백을 진행하고,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사항을 파악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던 중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플러스친구에 버튼을 추가하고자 했지만,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던 저는 그것이 불가능했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
저는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자 합니다. 최소한,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SW 아카데미에 지원한 이유 역시, 저의 앞선 실패 경험을 발판삼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.